

●●● 장재성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 전국 육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만든다



▲ 장재성

- 77. 시설원에 설립
- 89. 금학농장 설립
- 99. 대구경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 02. 대한양계협회 이사(16대)
- 현. 금학농장 대표

지난 5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육계분과위원과 지역 지부장단 및 17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재성 대구경북지회 육계분과위원장을 만장일치로 본회 육계분과위원장에 추대하였다. 이로써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부터 마찰을 빚어왔던 육계분과위원장 선임이 일단락되면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앞으로 3년간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를 이끌어갈 장재성 위원장을 만나 육계산업의 당면현안과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장재성 위원장은 지난 1999년부터 대구경북지회 육계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7년여동안 7개의 육계지부(칠곡, 구미, 김천, 의성, 안동, 상주 등)를 만드는 등 육계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난 27일은 경북지역 육계인 한마음대회를 열어 전국의 육계인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화합의 장을 열기도 하였다. 장재성 위원장은 현재 경북 칠곡에서 15년 동안 육계업(5만수 규모)을 경영해 오고 있다.

## 육계업 현황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생산량 감소와 수입 감소 등으로 장기간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닭고기와 브라질산 닭고기 등 수입산물이 수입될 채비를 갖추면서 육계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육계업계는 지난 2월 22일 양계협회 정기총회 이후 3개월 여간 집행부 구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큰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현재 육계업계는 계열화, 자조금, 질병방역 문제 등 육계업 생존을 위해 풀어야 할 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만 이번엔 분과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육계인들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육계업계 내부적으로 있었던 갈등을 털어버리고 육계업계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은?

15년간 육계업을 해오면서 IMF,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여러 차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으나 육계분과위원장으로서는 육계업계가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점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육계분과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육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즉, 제한되어 있는 분과위원을 각 지회산하 지부들도 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시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육계인들이 언제든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육계업의 현안문제를 도출시켜 육계업 발전을 꾀해나가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자생적으로 계열생산 협의체들이 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육계분과위원회는 우리의 생

존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이며, 거시적으로는 협회에 참여시켜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육계업계의 혼란을 이용해 계육협회가 일부 계열사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적인 육계분과위원회 설립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들을 볼모로 한 계열사들의 교묘한 술책이라 볼 수 있으며,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이러한 발상이 계속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육계업 생존전략은?

지난 1990년 이후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면서 육계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장들이 계열화에 참여하다보니 계열업체와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업체들의 일방적인 계약체결로 육계생산자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입도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들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육수수료 인상,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문제, 표준계약사육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계열사와 계약사육농가들 사이에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손쉬운 방법입니다. 현재 일부 계열업체들은 이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19일에 개최되었던 육계계열화 위탁사육관련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육계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